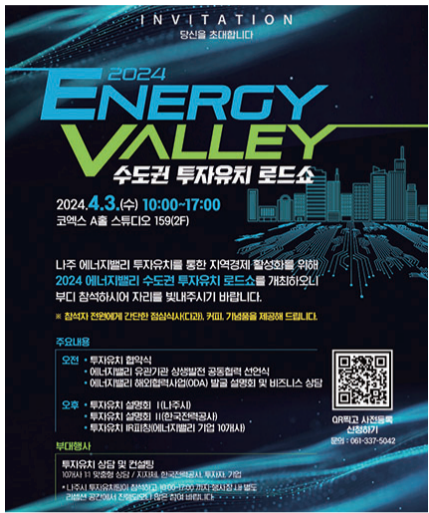


“에너지밸리 성장 동력 확보” 서울 투자유치 로드쇼



나주시, 3~5일 코엑스에서 진행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 유치

나주시가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에너지신산업 앵커(선도) 기업 확대 유치를 나선다.

에너지밸리는 지난 2014년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나주와 광주 남구 일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에너지신산업

집적화 단지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4월3~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신산업 중심지 나주의 장점을 적극 알리는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올해까지 두 번째로 지역을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확대 유치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첫날인 3일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로드쇼가 열린다.

둘째날인 4일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MVDC(중압직류 배전)를

주제로 세미나와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투자유치 로드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로드쇼는 윤병태 시장의 ‘매력 넘치는 나주 기업투자 환경’ 소개를 시작으로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MOU) 체결, 유관기관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 나주시와 한전의 에너지밸리 투자환경 공동 설명, 스타트업 10개사의 투자유치 데모 데이 기업 홍보(IR) 발표가 이어질 예정

이다. 행사 기간에는 나주 관내 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 중심지 나주’를 알리는 공동홍보관도 운영된다.

나주시는 20개 부스에서 홍보·투자유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투자유치 로드쇼와 홍보관 운영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중심지 나주의 뛰어난 투자 환경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연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4월 첫째 주 영산강 동섬 일대 5만㎡에 만개한 유채꽃으로 장관이 펼쳐진다.

나주시 제공

“노란 유채꽃밭 물결 영산강서 만끽하세요”

이번주 동섬 일대 만개

나주시가 ‘500만 나주 관광 시대’를 위해 전년보다 약 3배 확장된 28만㎡(약 8만5000평) 규모의 하천변에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 중이다.

길이 1.5km, 넓이 5만㎡(약 1만5000평)에 달하는 영산강 동섬 일대에 유채꽃이 4월 첫째 주 만개할 예정이다.

나주에서 가장 먼저 상춘객에게 꽃 물결을 선보일 영산강 동섬은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인들 필수 데이트 코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차는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주차장(무료)을 이용하면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 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나주시가 지난달 29일 ‘2024년 나주 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농발대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앞서 농민들의 무사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 198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나주농민회(회장 박용래)와 여성농민회(회장 송숙희)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영농발대식은 종합스포츠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15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공연과 길놀이, 시립국악단 축하공연 천신제 등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나주농민회·여성농민회장의 대회사, 내외빈 격려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조대봉 기자

특히 농민회는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제법 제정 등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어려운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에서도 농업을 수호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다”며 “농민들께서 마음 놓고 농사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살맛나는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푸드업사이클링 추진, 스마트팜 활성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반려동물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 도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달 22일까지

나주시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도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임산부 도예 체험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안정과 건강한 임신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5월22일까지 매주 수요일 빛가람동 공방 어셈블리에서 총 6회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스승물레 활용 원형 접시 제작 △디저트 접시 및 찻잔 제작 △색지 활용 접시 제작 △이유식 식기세트 제작 △핸드페인팅 부부 컵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도예 체험 프로그램 참석자는 “도에 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안정은 물론, 비슷한 또래의 임산부들과 임신·출산·육아 등 정



보도 공유할 수 있어 특히 좋았다”면서 “나주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

램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임산부 요가, 숲 체험을 통한 힐링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산부 도예 체험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보건소(061-339-2129)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는 가임기 여성 사전검사, 난임진단검시비 지원,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보건소, 어르신 낙상 예방 강화

나주시보건소(소장 강동렬)가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고 31일 밝혔다.

‘나주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시 연간 낙상 경험률은 13%에 달하며, 70세 이상(26.2%)이 가장 많다.

나주시보건소는 노인 낙상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근 나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복찬), 나주체력인증센터(센터장 이종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지난해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실시한 ‘어은완(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낙상예방을 위한 노인 근력 강화 프로그램 공동 참여 및 지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한다. 사업 대상도 전년도 20명에서 2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경찰,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

나주경찰은 지난달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

협력단체 연합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주민참여치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치안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언하기 위한 모임이다. 경유회, 경찰발전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안보자문협의회, 모범안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여성일상지킴이,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총 9개 협력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협력단체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윤남철 경찰발전협의회회장은 “경찰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시민과 경찰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교역할에 앞장서서 나주경찰과 함께하는 참여치안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연합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각 협력단체장님



께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빈틈없는 치안활동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